

찰나

김민재



‘아이는 어릴 때 평생 할 효도를 다 한다.’라는 말이 있다. ‘나에게 이쁨을 떨고 행복을 줬으니 나도 나중에 네가 속을 썩이더라도 다 받아들이겠다’라는 의미에서 생긴 말일 것이다. ‘30 대 부모를 둔 어린아이가 있는 가정’ 멋지고 이상적인 가족이다. 그러면 자라난 아이가 있는 가정은 이상적이지 못할까?

명절이 되면 아버지 차를 타고 아무렇지 않게 내려가던 태안, 그리고 나를 반겨주시던 할아버지, 운전하느라 힘들어서 주무시는 아버지, 주방에서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던 어머니, 사촌들과 재미있게 노는 나. 이 모든 것이 이제는 재현될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다. 성인이 되자, 얼마 지나지 않아 시골에 계시던 친할머니, 그리고 친할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이다.

그것은 나에게 가족의 의미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주었다. 아버지의 입장에서 ‘이상적인 가족’은 어린아이, 부모님, 조부모님의 구성 일것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그런데 나는 이제 성인이 되었고, 어리지도 않다. 더불어 조부모님까지 안 계시니, 아버지에게 우리 가족은 더 이상 완전한 가족이 될 수 없을까? 의문이 들었다.

이상적인 가족을 생각해보니 그 순간은 ‘찰나’이고, 가족을 구성하는 기간의 극히 일부라는 사실을 인지했다. 그 ‘찰나’의 이상적인 가족을 느끼고 초점을 잃은 가족이 되어버리는 것은 아닐까 두려웠다. 이상적인 가족을 느끼고 그 이후 느끼게 될 공허함이

무섭게 다가왔다. 그리고 번쩍하는 찰나의 찬란한 순간을 즐기고 그 넓디넓은 인생의 공백을 메우게 될 그저 아무것도 아닌 맹한 빛이 두려워졌다.

하지만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 실제 '비이상적인 가족'에 소속되어 몸을 부대끼며 살아가는 구성원으로서 생각해 보니 두려움이 사라졌다. 나는 지금 우리 가족이 좋고, 이상적인 가족이 아니어도 좋다. 이론과 현실은 다르듯, 실제로 겪어보면 다르듯, '비이상적인 가족'에서 살아가는 한 구성원으로써 싫지 않다. 아니 과거보다 좋다. 인간은 불완전하기에 과거의 경험에 추억보정이 들어가기에 이상적인 가족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나 생각해 본다.

그렇기에 이상적인 가족의 개념에 얽매어 있기보다는 현실을 살고 자신이 속해 있는 가족이 이상적인 가족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